

2026.

# 모아상담소 봄호

따뜻한 봄 햇살.. 향기로운 바람..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기를..



한국아동발달연구소

# 목차



**01** 프로그램 소개 RT반응성 상호작용



**02** 사례공유 훈육이 필요한 아동



**03** 책소개 자기조절력을 키우는 반응적 훈육



**04** 프로그램 후기 흑룡어린이집 백윤정원장



**05** 연구소 소식 Full Battery 검사를 위한MOU체결



**06** 전문가 칼럼 연구소 자문위원 홍은주교수

## 연구소 프로그램 소개 - RT 반응성 상호작용



한국아동발달연구소에서는 회원 기관을 위해 2026년도 4회의 무료특강을 계획하였습니다.

2026년도 특강 교육주제는 **RT 반응성 상호작용**입니다. RT는 놀이중심 보육과정과 가장 유사하며, 아동의 능동성과 주도성을 강조하는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일상 속 부모나 교사의 반응은 아동에게 잠재되어있는 주도성, 문제해결, 자기조절, 자신감 발달과 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사회, 정서는 물론 뇌발달을 촉진합니다.

아동의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나 아동이 잘 발달하고 있는지 고민하는 부모, 교사에게 아동발달에 대한 통찰을 높이고 행복한 부모-자녀 관계를 증진을 돕기 위해 RT 반응성 상호작용에 대한 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각 교육은 대상자에 따라 내용의 수준과 사례를 준비하였지만, 전 과정을 이수하신다면 더욱 RT의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 **1분기 교육 : 원장교육 “부모-자녀 성장솔루션”**

첫 번째 교육은 5월 7일(목) 원장님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RT반응성 상호작용의 철학과 이론에 대해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발달 영역의 발달목표와 상호성, 수반성, 통제분배, 애정, 조화의 RT 전략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2분기 교육 : 부모교육 “나는 어떤 부모인가요?”**

두 번째 교육은 부모님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수동으로 만드는 지시형 부모, 성장을 멈추게 만드는 과거형 부모, 잠재력을 이끄는 반응형 부모에 대해 알아보고 부모 자신의 양육태도를 점검해 봅니다. 더불어 자녀를 성장시키는 반응적으로 반응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계획하였습니다.

## **3분기 교육 : 관리자 교육(원감, 주임, 선임) “가르치지 말고 반응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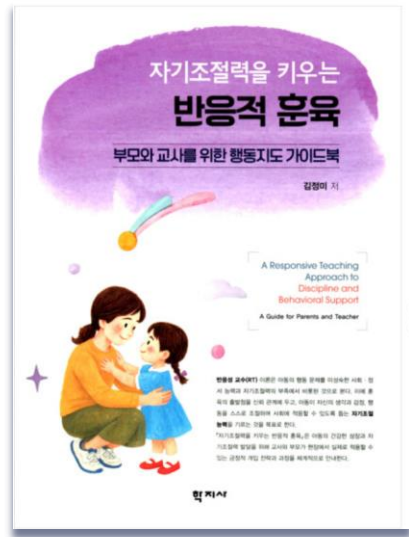
3분기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RT반응성 상호작용에 대한 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실상황에서 아동의 신호를 읽고 긍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RT에서 말하는 자기조절을 키우는 반응적 훈육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반응적 상호작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4분기 교육 : 교사교육 “우리 아이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4분기에는 교사를 대상으로 실제 어린이집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 RT 방법으로 아동에게 반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사례 중심, 질의 응답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연구소에서 준비한 특강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책.소.개

## 자기조절력을 키우는 반응적 훈육 부모와 교사를 위한 행동지도 가이드북



저자. 김정미 (한국 RT센터 대표)

[K-CDI아동발달검사], [RT부모교육], [RT반응성 교수과정] 등 다수



우리는 아동의 행동 중 일상을 방해하고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행동을 '문제'라고 표현하고 반응적 훈육을 하고자 한다. 훈육을 하는 부모나 교사의 태도를 보며 너무 엄격하거나 엄격함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자유방임을 선택하기도 한다.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긍정훈육이 필요함을 알지만 실제적인 방법은 항상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저자는 <반응성 교수:RT>에서는 행동문제에 대해 무엇보다도 아동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자기조절을 강조한다. 문제행동에 대한 궁극적 변화가 아동의 능동적 인식과 참여에 의한 자기조절력을 키우는 것이라는 데 깊이 동감하며, 일상적인 가정과 교육현장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이 되풀이 되는 어려움을 겪는 부모나 교사들과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반응적 훈육'을 기획하고 소개하고 있다.

#### **반응적 훈육의 전제조건(p39~43)**

반응적 훈육은 아동의 성향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리고 아동이 스스로 행동과 감정을 조절하여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둔다.

아동은 부모나 교사로부터 자신이 했던 부적응 행동에 대해 훈육을 받았지만 여전히 평소와 같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인식을 유지한다.

- 1) 아동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기대를 가졌는가?
- 2) 아동의 자기조절 발달에 대해 이해하는가?
- 3) 아동의 생물학적 성향에 대해 이해하는가?
- 4) 아동이 거부하는 것을 수용하는가?
- 5) 아동이 불안해하는 것을 이해하는가?



### 반응적 훈육의 실행기준(p44~45)

반응적 훈육은 아동과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흥미와 관심에 일차적 초점을 두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동의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반응적 훈육은 아동 중심적인 상호작용을 중요시하지만 아동의 행동에 대해 즉각적 제한이 필요한 몇 가지의 기준이 있다.

- 1) 안전성을 해치는가?
- 2) 사회규범을 벗어나는가?
- 3) 발달수준에 적합한 수행인가?

### 반응적 훈육을 위한 실천전략(p70~83)

- 1) 아동과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 2) 일상 속 긍정반응을 모델링한다.
- 3) 문제행동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다.
- 4) 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한다.
- 5) 긍정 피드백의 기회를 늘린다.
- 6) 가능한 행동범위를 설정한다.
- 7) 명확하게 전달한다.

소개 드리는 책은 <반응적 훈육>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지만, 혼자 읽더라도 훈육의 개괄적인 이해, 행동형성의 매커니즘, 반응적 훈육을 위한 실천전략, 반응적 훈육 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요소를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훈육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하여 실제 일상생활이나 교실상황에서 부모나 교사가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례공유 — 훈육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아동발달연구소 소장 강지현



훈육이란: 사회적으로 명확하게 요청되는 행위나 습관을 형성시키고 발전시키는 것 / 아동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것,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번 호에는 [반 관찰]사례를 소개합니다.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개인정보보호와 비밀보장 원칙에 따라 사적인 내용들을 공개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례가 드러나지 않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또는 내용의 일부 각색이 이루어졌음을 미리 안내 드립니다.

Q. “훈육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세 새싹반 교사 이야기

## 3세반 교사의 고민

- 📖 이야기 나누기 시가에 민성이가 장난을 치기 시작하면 다른 친구들도 주의집중이 흩어져서 장난을 치기 시작해요.
- 📖 수아에게 정리를 하라고 이야기 해도 정리를 하지 않고 계속 놀이를 해요.
- 📖 선호에게 잘못된 행동에 대해 훈육을 하지만 뒤돌아 서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요.
- 📖 진아는 훈육을 하면 눈을 피하고 듣지 않아요.
- 📖 하루종일 훈육을 하다보면 목도 아프고 과연 내가 교사를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들면서 눈물이 납니다.





### 연구소 전문가의 3세반 아동관찰

- 민성 관찰 : 교사는 손유희를 하고 책을 읽어준다. 민성이는 별떡 일어나 교사에게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여러 권 가지고 온다. 교사는 제자리 가져다 둘 것을 지시하지만 그냥 자리로 들어가 선호 옆에 앉아 서로 몸을 부딪치며 장난을 치기도 하고 옆에 있는 교구를 만져 바구니를 떨어트리는 등 산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선호도 민성의 장난에 동참한다.
- 수아 관찰 : 교사는 아이들에게 정리시간을 알린다. 정리에 참여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수아는 놀이를 아직 마무리 하지 못해 만들기를 계속하고 정리할 생각이 없다. 교사는 계속 아이들을 따라 다니며 정리를 하도록 알린다. 정리를 다하고 함께 자리는 앉는데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 선호 관찰 : 교실에서 뛰어다니지 말라고 여러차례 이야기 했지만 계속 뛰어다닌다. 친구가 만든 블록을 넘어트려 갈등 상황이 벌어진다. 교사는 친구의 장난감을 뺏은 친구의 훈육을 하는 중이었는데 선호는 털실을 가지고 놀다가 친구의 목에 실이 감길 것 같은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 진아 관찰 : 진아는 혼자 목공품을 종이에 짜서 만들기 작업 중이었다. 친구가 다가와서 같이 놀자라고 하자 "싫어 저리가"하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낸다. 교사는 진아에게 "친구랑 함께 놀아야지."하고 훈육하지만 화가난 진아는 눈을 피하고 교사의 말을 듣지 않는다.





## 효율적인 훈육을 위한 Tip

- \* 어린이집 교실은 다양한 성향과 다양한 관심을 가진 아이들이 서로에게 방해받지 않으면서도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는 교실환경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놀이와 움직임이 교사의 지적이나 훈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 교사의 훈육은 너무 길어져서는 안됩니다. 한 아동을 훈육하기 위해 긴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전체 아동의 안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훈육은 단호하지만 짧고 반복적으로 해 주세요.
- \* 정리시간은 미리 알려주어 놀이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계속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학기 초라 아동들이 스스로 정리를 하는 것이 어렵다면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도움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 \* 정리시간이 길어지면 아이들은 다시 새로운 놀이를 시작합니다. 20분이면 아이들은 3~4가지 놀이가 진행됩니다.
- \* 교사는 아동의 표현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동이 만든 작품에 먼저 이름을 붙이거나, 아동의 호기심을 방해행동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아이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면 조금 떨어져서 한명씩 관찰을 해보세요. 친구들의 생각과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 연구소 프로그램 후기- 부모교육

"감성능력 - 마음의 언어를 키워라"



흑룡어린이집  
백윤정 원장님

푸른 바다로 둘러싸인 백령도에서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참 특별한 일입니다.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행복이 있는 반면, 육지와 떨어진 섬 지역이라는 환경은 부모교육과 양육 정보 접근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우리 어린이집은 늘 고민해 왔습니다.

"부모님들이 조금 더 전문적인 양육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만들어 드릴 수 없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이번 부모교육 「감성능력 - 마음의 언어를 키워라」를 준비하게 되었고, 뜻깊게도 한국아동발달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귀한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백령도까지 찾아와 주신 강지현 소장님과,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귀한 시간을 내어 아이들 성장에 함께하고자 많은 부모님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강의를 넘어 부모와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를 사랑하지만 양육 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고민들을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서로 다른 양육 방식에서 오는 어려움, 아이에게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떻게 훈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미디어 환경 속에서 아이를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이야기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부모님들은 감성능력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아이의 언어발달과 사회성, 그리고 건강한 자아감 형성에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을 때 타인의 마음도 공감할 수 있으며, 안정된 정서는 학습과 관계 형성의 힘이 된다는 점에 많은 공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을 받고서 원장인 저 또한 "아이를 키우고 상장함에 있어 늘 정답을 찾는 과정 이라 생각했는데,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바르게 성장시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큰 감명을 받았고. "알고 있으나 지나치기 쉬운 부분으로 아이의 마음을 먼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이기 전에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어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도서지역의 소외된 교육문화, 물리적 거리 속에서도 양육의 배움에는 결코 소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백령도라는 지역적 한계 속에서도 부모님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접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위로 받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부모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은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공간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아이의 성장을 만들어 가는 양육의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한 명을 건강하게 키워 내기 위해서는 가정과 어린이집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린이집은 부모님들과 함께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작은 섬마을이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크고 깊다는 것을, 이번 부모교육을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손잡아 주신 모든 부모님들과 배움의 길에 함께 서 주신 한국아동발달연구소 소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연구소 소식- [ SH영재발달연구소 ]와 MOU 체결



2026년 5월 27일 한국아동발달연구소는 **SH영재발달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 & 해석상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SH영재발달연구소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장 홍은주 교수님은 본 연구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6월 중 연구소에서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 & 해석상담**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 할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칼럼- SH영재발달연구소 소장 홍은주

### **같은 영재라도, 잘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아이마다의 생각을 읽어주는 교사가 필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또래보다 언어가 빠른 것 같아요”, “생각이 깊은데 수업에서는 다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만나 보면, 영재성은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는 그림 한 장을 보고도 이야기를 길게 만들어 내고,

어떤 아이는 그 장면 속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상상하고, 등장인물에게 마음을 넣고, 자기만의 이야기로 확장합니다.

또 어떤 아이는 같은 그림을 보고 “이건 어떻게 움직일까?”, “이건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구조를 보고, 원리를 찾고, 방법을 설계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특성이 먼저 드러납니다.

겉으로만 보면 모두 “똑똑한 아이들 ” 입니다. 하지만 실제 교육에서는 이 차이를 읽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소 첫 수업에서 만난 아이들도 그랬습니다.

한 아이는 그림을 보자마자 장면을 살아 움직이는 이야기로 바꾸어 놓고, 로봇 그림 하나를 보고도 단순히 “멋있다 ” 에서 끝나지 않고, 그 로봇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군가를 도와주는 존재인지까지 상상하며 이야기를 펼쳐 나갔습니다. 이 아이에게서는 상상적 확장력, 서사적 사고, 이미지 해석 능력이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다른 한 아이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장면, 해결해야 하는 상황, 도구를 활용해야 하는 과제에 훨씬 더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널 수 있을까?”, “이건 여기에 놓고, 저건 받쳐 주면 되지 않을까?”처럼 문제를 구조적으로 보고, 자기 나름의 방버블 조합해 보려는 힘이 나타났습니다.



이 아이에게서는 탐구적 호기심, 문제해결력, 구조화된 사고의 결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아이 모두 충분히 뛰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뛰어남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영재교육은 달라져야 합니다.

영재를 단순히 “빨리 아는 아이”, “많이 아는 아이”, “문제를 잘 푸는 아이 ” 로만 보면 아이의 진짜 가능성을 놓치게 됩니다.

어떤 아이는 말과 상상으로 먼저 세계를 넓혀 가고, 어떤 아이는 원리와 구조를 통해 세계를 이해합니다.

어떤 아이는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생각이 살아나고, 어떤 아이는 혼자 깊이 탐구한 뒤 자기 언어로 정리할 때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가르치는 것 이전에, 아이의 생각이 어떤 방식으로 자라는지 읽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첫 만남부터 아이를 시험 보듯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림 해석, 규칙 전환 게임, 이야기 확장, 협동 문제해결, 선택형 디베이트와 같은 활동을 통해 아이가 어떻게 생각을 시작하는지, 자신의 이유를 얼마나 말로 표현하는지, 규칙을 이해하고 바뀐 상황에 얼마나 유연하게 반응하는지, 또래와 함께할 때 어떤 방식으로 듣고, 조율하고 확장하는지를 자연스럽게 관찰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의 현재 수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육 방식에서 더 잘 발휘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상상이 강점인 아이에게는 이야기 기반 디베이트, 인물의 마음 읽기, 이미지 해석, 말하기 확장 활동이 잘 맞습니다. 반대로 구조화된 사고가 강한 아이에게는 문제해결 토의, 규칙 설계, 전략 게임, 원인과 결과 분석 활동이 더 큰 자극이 됩니다.

두 아이의 사례를 통해 아이들은 저마다 다르게 빛난다는 사실을 다시 느낍니다. 그리고 그 빛은 획일적인 프로그램 안에서보다, 아이마다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받을 때 훨씬 더 잘 자랍니다. 아이마다의 생각을 읽어주는 교사! 아이마다의 강점을 발견하는 교사가 되어주세요.

출처: 스토리헤롯 강남원 칼럼



## 〈 2026연구소 프로그램 비용 안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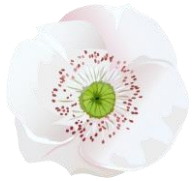
| 대상     | 프로그램명             |              | 회원 비용              |
|--------|-------------------|--------------|--------------------|
| 어린이집   | 영유아 관찰 프로그램       |              | 1인 175,000원 (60분)  |
|        | 영유아 반관찰 프로그램      |              | 1개반 275,000원 (90분) |
|        | 개입 관련 프로그램        |              | 1회 300,000원 (120분) |
| 부모     | 부모상담              |              | 100,000원           |
|        | 부모교육              |              | 400,000원           |
| 교직원    | 나를<br>찾아가는<br>여행  | MBTI검사 기반    | 400,000원           |
|        |                   | 엘리스의 신념검사 활용 | 400,000원           |
|        | 집단교사코칭 (주제중심)     |              | 400,000원           |
|        | 교사-영유아 애착 증진 프로그램 |              | 400,000원           |
|        | 교사상담              |              | 60,000원            |
| 심리검사   | STS 기질검사          |              | 22,000원            |
|        | PAT-2 부모양육태도검사    |              | 22,000원            |
|        | K-CDI 아동발달검사      |              | 22,000원            |
| 자격증 과정 | 영유아부모상담심리전문가 과정   |              | 500,000원           |
|        | 발달심리평가사 과정        |              | 400,000원           |



## 1. 사단법인 한국아동발달연구소

홈페이지: [kcdlab.or.kr](http://kcdlab.or.kr)

---



## 2. 연구소 위치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7. 2층  
모아맘보육재단 내

---



## 3. 연구소 **MAIL** / 연락처

[kcdlab@daum.net](mailto:kcdlab@daum.net)

02-6338-1011

---

Spring Flowers





# ***Thank You***

*Have a happy spring day*

연구소 소식은 2026년도 ‘여름호’에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

**2026. 봄호**

---

---

한국아동발달연구소

---